

북구·광산구 일대 교통 대란 예고... 5년간 지하철 공사

광주역~첨단~시청 연결 2호선 2단계 착공...20km 구간 하루 13만대 이동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동시 진행...市, 대응단 가동 등 대책 마련 분주

내년부터 5년간 광주 북구·광산구를 관통하는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와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동시 진행되면서 도심 교통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광주시는 가장 '교통대응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시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구간 자체가 평소에도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고 있어 당분간 시민의 교통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어린이교통공원에서 광주역~전남대~첨단~수완지구~시청 등 광주 도시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 시작을 알렸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1, 2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는 2019년 공사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착공에 들어간 2단계는 '광역권 최초의 순환선'으로 오는 2029년 개통 예정이며,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첨단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시청을 경유해 도심 곳곳을 연결하는 20.046km 구간 순환선이다. 정거장은 총 18개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역사 주변 주거단지 개발 및 유동인구 증가 등 신규 역세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주요 생활권별 환승 거점역 조성으로 지역 활력 및 도시경쟁력이 강화되고, 공사 발주에 따른 지역건설경기 회복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가 밝힌 도시철도 2호선의 생산 및 부가 가치 효과는 2조6000억원, 고용효과 1만8191명, 취업효과 1만9227명이다.

광주시는 2단계 구간 착공식을 시작으로 사무소 설치, 시공 촉랑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구간별 교통 통제 등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또 내년 4월부터 지역 속원사업인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도 진행한다. 극심한 혼잡구간인 동광주IC부터 광산IC까지 11.2km, 양복 4차로를 8차로까지 확장하는 공사로 오는 2029년 완공 목표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2029년이면 도심 도로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문제는 공사 기간 교통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공사 구간 주변으로 북구와 광산구 주민 70만~80여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3만대 정도의 차량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사기간 첨단 등 산업단지 출퇴근 인구다 도심 내 유동인구 이동 등이 겹치면, 일부 도로는 교통불편을 넘어 차량 이동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교통 지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용봉 IC 구간, 전남대~일곡지구, 광산IC 구간, 첨단지구, 수완지구 등이 대표적인 혼잡구간으로 꼽힌다.

광주시는 일단 자치구, 경찰청,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가장 혼잡도로 교통 대응 추진단을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일·주 단위 차량 이동량을 분석해 공사과 차량 통제 구간·시간을 조정하고 운행 분산, 우회도로 활용 등 대안도 모색한다. 시는 또 시민을 대상으로 공사에 따른 교통혼잡의 불가피성을 공유하는 자리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장은 "도시철도 2단계 공사가 시작되고, 내년 4월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까지 겹치면 교통 불편과 피로도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한 공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2호선 2단계 착공식이 13일 오후 북구 용봉동 광주어린이교통공원 광장에서 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주상복합건물 비주거시설 의무 면적 축소 추진

불황에 상가 공실 넘쳐...市, 15%→10% 이상 하향 검토

광주시가 현재 15% 이상인 주상복합건물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물의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을 축소하는 데 대한 각계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는 18일 열리는 도시계획 분야 '월요 대화'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월요 대화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정례 소통 행사로 매주 월요일 분야별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광주시는 2019년 3월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을 기존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도시 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업지역에 사실상 아파트나 다름없는 건물이 난립해 주거지화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유였다.

실질적으로 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거 시설 10%, 주거 시설 90% 비율의 건물이 상업지역 곳곳에 들어서면서, 사실상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됐는데도 학교나 기반 시설은 부족한 상황이 연출됐다는 지적 등도 나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민선 7기 때 '상업지역에 맞는 상업시설' 양성화를 위해 비주거 시설 면적을

확대했지만, 이번에는 경기불황 등으로 상가 공실이 속출하면서 상업지역 슬럼화의 슬럼화를 불러오는 등의 부작용을 양산했다.

민선 8기 광주시는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을 다시 10%로 환원하는 등 하향 조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강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비주거 시설 비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는 점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가, 시의회 등 찬반 의견을 듣고 내부안이 마련되면 개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난임부부 지원 폭 넓힌다

시술비·한방 치료 대상 확대...내년엔 난자 냉동 사업 추진

전남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등이며, 2024년 신규사업으로 난자 냉동 지원 사업과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인 정부형 난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 횟수(신선배아 9회·동결배아 7회·인공수정 5회)를 모두 소진한 난임부부를 위해 최대 150만원을 소득 및 횟수 제한 없이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올해 600명에서 2024년 650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전남 한의사회와 한

계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4개월분)을 지원한다. 올해 150명에서 2024년 180명으로 지원 인원을 늘렸다. 2024년 신규 시범사업인 '냉동 난자 지원' 사업은 가임력 보전을 위해 난자 냉동을 원하는 여성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 사업을 통해 냉동 난자를 이용해 임신 시술을 할 때 부부당 최대 200만원씩 지원한다.

오종우 전남도 인구정책실장은 "올해 11월 기준 난임 지원을 받아 임신한 경우는 765명으로, 지원사업 실시 전인 2020년 난임 지원으로 임신한 402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며 "경제적 여건 탓에 임신·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 경제 선도 명품 강소기업 35곳 선정

12곳 신규 지정...3년간 과제 기획·신기술 사업화 등 지원

광주시는 "지역경제를 이끌 제12기 명품 강소기업 35개사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3개 사는 재지정, 22개 사는 새로 지정받았다.

선정된 기업들은 지정 기간 3년간 연구개발 과제 기획, 신기술 사업화, 공정 개선 등 지원을 받는다. 광주시, 중소벤처기업청,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신용보증재단 등 기관 협업을 통해 경영, 기술 등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 명품 강소기업 선정 대상은 매출액 50억원 이상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은 10억원 이상) 이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1% 이상인 기업이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명품강소기업이 지역혁신 리더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규로 지정된 제12기 명품 강소기업은 ㈜금호기공(대표 표광욱), ㈜디투리스(나상민), ㈜리눅스아이티(권경주), ㈜메가웍스(박기원), ㈜비엔디(민남희), ㈜삼도환경(정우남), ㈜수인산업(박연의), ㈜수연산업(김중수), ㈜삼우전자(김동수), 선일텔레콤(구본석, 황미령), ㈜성진글로벌(정상희), ㈜씨아이에스케이(이성오), 농업회사법인 ㈜유기농마루(김상범), 이에스글로벌(임동규), ㈜우리원테크(김찬욱), 제이피산업(정판성), ㈜준테크(정종인), ㈜제이투모우원(장석균), 제로웰(김상진), ㈜카라멜라(박서연), ㈜케네티트(정효정), ㈜한아(송창금)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인
정인민 시인 043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작가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청작가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청작가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